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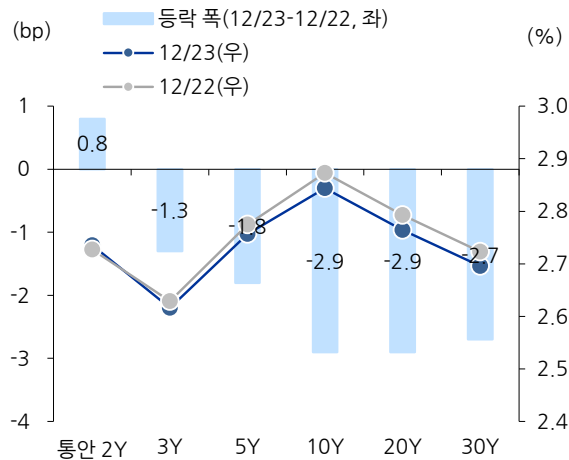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12/2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16%	-1.3	6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44%	-2.9	12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2.8	24.4	16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5	-2.0	4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7.54	9.0	-133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42%	3.2	9.0
	미국채 10년물	4.588%	6.4	18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4.6	21.4	14.8
	독일국채 10년물	2.319%	3.8	7.5
	호주국채 10년물	4.406%	-8.7	8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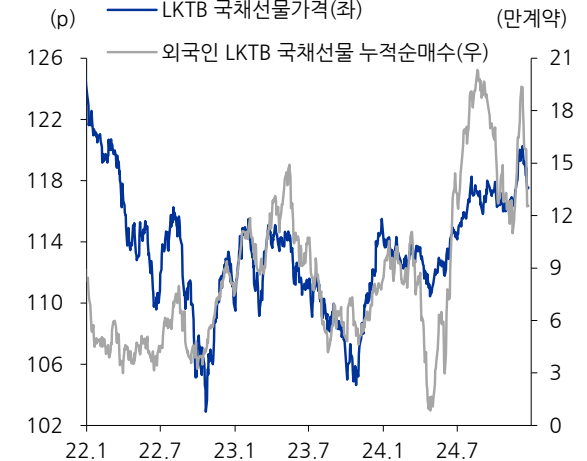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지난주 예상을 밑돈 PCE로 하락한 미국채 금리 연동, 강세 출발. 한은, 14조원 규모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 하며 금리 하락 뒷받침
- 다만 점차 추가 강세폭은 제한되었음. 오후 중 내년 국고채 발행 앞둔 경계로 로컬 기관 순매도 확대. 야당은 이날도 추경 촉구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내년 연준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된 부담 지속.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미 재정 악화 우려도 확대. 미 연방정부 섣다른 위기 해소로 위험선호심리가 커진 점, 10월 내 구채 수주가 상향 조정된 점도 금리 상승 견인
- 12월 CB 소비자신뢰지수 및 11월 내구재수주, 당초 예상과 이전치 하회. 다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음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2/23일	1D	1W	YTD
원/달러	1,452.00	0.0%	1.2%	12.7%
달러지수	108.08	0.3%	1.1%	6.7%
달러/유로	1.041	-0.2%	-1.0%	-5.8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1	0.2%	0.2%	2.6%
엔/달러	157.14	0.5%	1.9%	11.6%
달러/파운드	1.254	-0.3%	-1.2%	-1.5%
헤알/달러	6.19	1.7%	1.0%	27.6%
WTI 근월물(\$)	69.55	0.1%	-1.6%	-2.9%
금 현물(\$)	2,611.12	-0.4%	-1.6%	26.6%
구리 3개월물(\$)	8,936.50	-0.1%	-1.4%	4.4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60원 상승한 1,452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는 1,450.90원 마감
- 오전 중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달러-원은 완만히 반등. 대신 주요국 금융시장이 성탄절 연휴 들어가며 전체적으로 거래는 한산했던 까닭에 상승폭도 제한
-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순매수로 호조를 보인 점도 달러-원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며 상승
- 미국채 금리가 장 중 4.6%를 상향돌파 하는 등 급등하고, 미 연방정부 섣다운 위기 해소, 10월 내구재 수주 상향조정되며 달러 인덱스 상승
- 12월 CB 소비자신뢰지수, 104.7로 예상치(113) 대폭 하회. 11월 내구재 수주도 -1.1%(M) 감소하며 예상(-0.4%(M))을 밑돌았음. 다만 환율 영향은 미미
- 금일 한국 금융안정회의 예정, 미국/홍콩 조기폐장